

어학연수생 주간 보고서

연수기관 (국가명)	APU 말레이시아	날짜	2024. 1. 28
학과	간호학과	이름	홍보람
학번	2248027	이메일주소	ckl3032@naver.com

학교 생활

## 1. 학업 관련

마지막 pt 발표가 있었다. 3차에 걸친 pt 동안에 교수님 께서 자세와 발음 표정 내용 등 상세하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나 스스로 많이 달라진 모습에 뿌듯했다.

writing 에세이 첨삭을 매시간 한명한명 앞으로 불러서 해주셨는데 들어쓰기 콤마 마침표 그리고 글을 쓸때의 표현과 말할때의 표현이 다른것들 등등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쓰고 있던 것들을 피드백 해주셔서 하나씩 고치려고 해보았다. 대조 비교 서론 본론 원인 결과의 형식으로 글이 어떻게 골조를 이루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가르침이 있었다.

reading 이나 listening 의 경우 내용 파악 뿐아니라 내용에 담겨져있는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하는 것들이 한국의 언어 교육과 많이 달랐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분이 꿈을 꾸었는데 목걸이를 훔쳐갔다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숨은 의미가 무엇이라고 추측하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농담이 섞여있어서 문화적인것 감정적인 것도 알아내야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적응 할만 했지만 발전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은 있어야 될것 같다.

## 2. 생활 관련

이번주에는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고 각 반별로 장기자랑 을 준비 해서 노래도 부르고 연합으로 패션쇼가 진행되었는데 미스 유니버스가 오셔서 시상도 하고 교수님들도 워킹하시고 해서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친구들이 몸살 장염 감기 사고 가기전에 많이들 아파서 중이염 임파선염인 친구들은 열이 너무 많이 나서내가 가져온 광범위 항생제 3일 치씩 나눠 주었다. 다들 항생제를 처방 받아서 가져 온 친구는 없었다. 그냥 해열 진통제 정도 가져왔는데 다행히 잘 나아서 생활 할수있게 되었다. 좀 음식이나 생활이 안맞아도 씹씹하게 잘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 매사가 불만인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 잘 버티고들 있는것 같다.

## 3. 기타

체험활동은 힌두교 사원 산위에있는 동굴에 가기로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산 가까이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 버스에서 왕복 3 시간을 있어서 멀미도 하고 지쳤다. 그런 곳 보다는 내가 개인적으로 자유시간이 있는날 국립 박물관과 이슬람 박물관에 다녀왔는데 훨씬 환경도 좋았고 역사와 예술등을 볼수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워터파크를 두번 가는것보다 박물관을 가는것을 체험활동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딜가든 느끼는 것이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것 같다 같은 곳을 같은 환경 같은 조건으로 가도 어떤친구들을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는가 하면 어떤친구들은 최대한 많이보고 많이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이번 연수를 통해 나에게 더이상의 발전이 있을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풀렸다. 실제로 발전이 있고 20 대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 지 어떤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알게 되어서 소통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물론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20 분을 35 도 뺑별에 놀라서 뛰어다니고 응급실도가고 경찰서도 가보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더욱 내상황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도 의학용어가 들려서 문진을 통역한다던지 약설명을 해준다던지 진단서수속하는것들이 도움이 되었다는게 뿌듯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둘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하게 되었다.

###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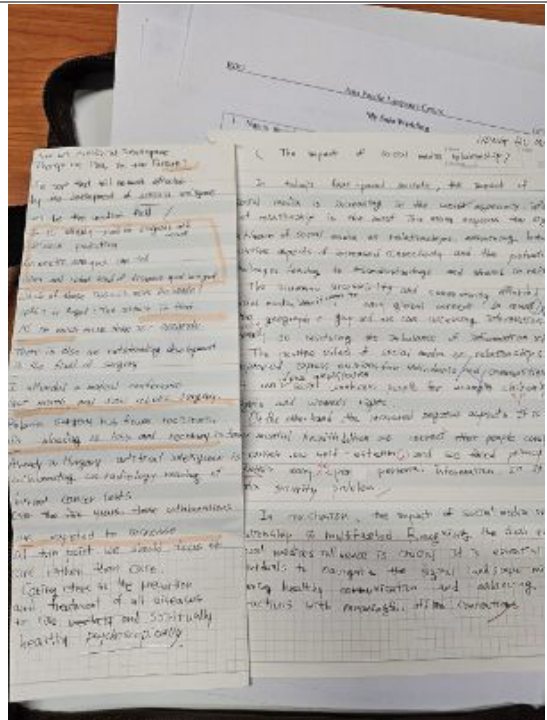


세번째 PT “How will Artificial Intelligence change our lives in the Future?” 의 주제를 선정하여 나는 의료계 변화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전달함

학교 강당에서 진행된 축제 행사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모여 장기자랑을 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시간이라고 현지 간식을 종류별로 주셔서 감동적이었다.



매시간 에세이 첨삭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심.



첫 자유시간이 생긴날 국립 박물관 말레이시아는 여러나라의 침략이 잦았던곳 그런데 신기한것은 모든 흔적을 전시했다



두번째 자유시간이 생긴날 말라카를 갔다 가이드 분께서 역사를 버스에서 한시간하시고 쉬는시간후 다시 종교에 대해 한시간을 설명하셨다.



힌두교사원(취소)가기전 왕궁을 방문했다  
왕족들이 사는곳이라 들어갈수는 없었다.



개인 자유시간에 방문한 이슬람 박물관  
학교에서 단체로 이런곳을 가는게 좋을것같다